

---

# 무희망 인식이론(hopelessness theory)에 근거한 조손세대 변인의 우울감 결정력에 관한 연구

최 혜 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전공 조교수)

이 영 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성인자녀의 기능적 또는 구조적 부재로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게 된 조손세대 노인은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한다. 비조손세대 노인과의 비교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는 조손세대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감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손자녀 양육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노인의 우울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울감은 개인의 심리·사회·경제적 요인에 종속적인 만큼,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기 이전부터 심리·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손세대 노인이 높은 우울감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방법론상 두 집단 사이의 단순비교 만으로는 조손세대 노인의 높은 우울감이 조손세대 노인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심리·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손자녀 양육의 책임 그 자체로 인한 것인지 분석해 낼 수 없다.

따라서 두 집단 사이의 단순비교를 통해 손자녀 양육의 책임 자체가 노인의 우울감을 높인다고 결론지은 선행연구는 방법론상의 오류와 논리적 비약이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사실상이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는 논리적으로 견고하게 구축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한 탐색적 연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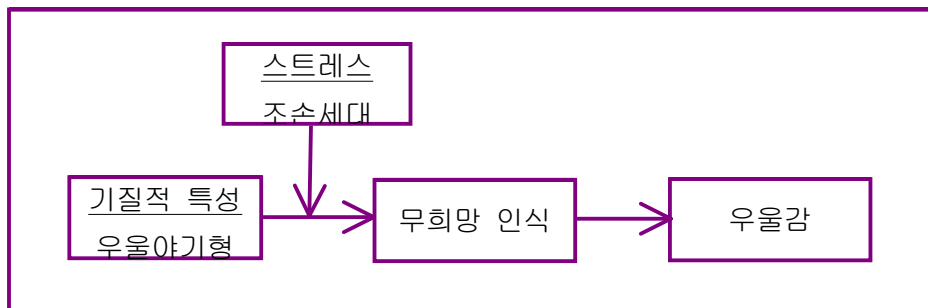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무희망 인식이론(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을 근거로 손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조손세대 조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조손세대 노인의 우울감에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적 틀

### 1) 우울에 대한 무희망 인식이론

무희망 인식이론은 우울을 야기하는 중심요인과 주변요인을 밝히고 우울의 병인학적 경로를 구체화 했다(Alloy & Clements, 1998). 무희망 인식이론은 세 종류의 우울야기형 추론 기질이 우울과 관련된 주변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무희망 이론은 부정적 사건 뒤에 따르는 사건의 원인, 결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우울야기형 추론이 우울의 중심요인이라고 설명한다 (Abela & Seligman, 2000). 우울야기형 추론을 형성하는 것은 무희망 인식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이며, 일단 무희망 인식이 형성되면 우울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따라서 무희망 인식이론은 우울의 병인학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우울야기형 추론기질을 지닌 사람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뒤 사건의 원인 결과, 그리고 자신에 대해 우울야기형 추론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우울야기형 추론형성은 무희망 인식을 높인다. 끝으로 발전된 무희망 인식은 우울을 유발한다. 그러나 우울야기형 추론유형을 지닌 개인 일지라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울야기형 추론유형을 지니지 않은 개인보다 우울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 2) 개념적 틀



무희망 인식이론에 근거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위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조손세대 조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노인의 우울감을 결정하는가’의 연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우울야기형 추론이 증가하면 무희망 인식도 증가한다.

가설 2 : 비조손세대 노인에서 조손세대 노인으로 상황이 변화해도 무희망 인식은 변화하지 않는다.

가설 3 : 우울야기형 추론과 무희망 인식 사이의 정적 연관성은 조손세대 노인에서만 나타난다.

가설 4 : 무희망 인식이 증가하면 우울감도 증가한다

가설 5 : 비조손세대 노인에서 조손세대 노인으로 상황이 변화해도 우울감은 변화하지 않는다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자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9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 두 개의 독립된 연구로부터 출처되었다. 비조손세대 노인의 자료는 '충주지역 고령 인구의 보건·복지 실태' 조사 연구로부터 출처되었다. 조손세대 노인의 자료는 '충주지역 조손세대 조부모의 복지욕구 및 실태 조사연구'로부터 출처되었다.

전체 분석대상자 325명의 79.69%(n=259)는 비조손세대노인, 20.31%(n=66)는 조손세대 노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94(sd=5.50)세이며, 남성노인은 38.77%(n=126), 여성노인은 61.23%(n=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분석방법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의 검증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 4. 연구결과

#### 1) 무희망 인식

통제변수인 노인의 연령, 성별, 신체적 건강, 주관적 재정상태는 무희망 인식의 14%를 설명했으며 신체적 건강과 주관적 재정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희망 인식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F=17.70, p<0.0001$ ), 무희망 인식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야기형 추론은 무희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21, p<0.01$ ), 조손세대는 무희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28, p=0.35$ ). 우울야기형 추론과 조손세대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무희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a=0.11, p=0.19$ ).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고 가설 3만이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우울야기형 추론은 무희망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야기형 추론이 무희망에 갖는 영향력은 조손세대 노인과 비조손세대 노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 2) 우울감

우울감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F=69.24, p<0.0001$ ), 우울감의 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야기형 추론은 우울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86, p<0.0001$ ). 무희망 인식 또한 우울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39, p<0.0001$ ). 통제변수와 함께 우울야기형 추론 그리고 무희망 인식이 통제된 상태에서 조손세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33, p<0.01$ ).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무희망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비조손세대 노인이 조손세대 노인으로 상황이 변화하면 무희망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우울감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 5. 결론 및 논의

무희망 인식이론의 ‘기질과 스트레스 상호작용 모델’이 가정하는 바와 달리, 우울야기형 추론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조손세대 노인의 무희망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손세대 노인과 비조손세대 노인 모두의 무희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희망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무희망 인식이론의 주장은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무희망 인식에 유의미한 결정력을 갖지 못했으며, 우울야기형 추론이 무희망 인식에 미치는 효과도 증개하지 못했던 조손세대가 우울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세대는 스트레스 변인으로써 노인의 무희망 인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울야기형 추론을 증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희망 인식이 통제된 상태에서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 성별, 신체적 건강, 주관적 재정상태, 무희망 인식 등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조손세대 노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노인의 우울감을 높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조손세대 노인은 인구심리·사회·경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자체만으로도 우울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손세대 노인의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 지원과 함께 조손세대 노인들의 고유한 욕구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